



발간자료

• **선박**: 선가: 신조선가치수 3주 연속 소수점 상승. LNG: HD한국조선해양의 3탱크 화물창 LNG선. BW LNG 추가 발주해서 4척 건조. 기술력 입증. 가스선: HD현대중공업 Union Maritime으로부터 VLGC 2척 수주. 올해 누적 52척으로 2023~2024년의 70~80척보다 강한 추세. 탱커: 삼성중공업, JP Morgan으로부터 수에즈맥스 2척 수주. 3월 89.3백만, 5월 92백만, 이번달 93백만달러로 신조선가 상승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반도체(Overweight)**: 지난 4월 터보퀀트에 이어 업종 내용이 최근 주가 조정의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26년 2번째 '반도체는 잘못이 없다' 구간. 국내 대형주 실적발표를 통해 26년/27년 실적 추정치 재상향, 빅테크 실적발표 이후 빅테크 디스카운트 & 메모리 프리미엄 시작에 대한 부분이 7월 말 확인되면서 8월은 추세 랠리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이라 판단. 7월 둘째 주까지 형성된 주가 저점은 깨지지 않을 바닥으로 공고하게 유지될 기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브이엠 적극 비중확대 의견 유지 (반도체/소부장 고영민)

• **음식료(Overweight)**: 국내 음식료 기업들은 비우호적 업황에 대응해 핵심 브랜드의 1) Flavor 다변화, 2) 채널 전용 제품 확대, 3) 자산·영업구조 효율화를 추진 중. 중동 전쟁 이후 원가 부담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생산 구조,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기업별로 차별화될 전망. 강한 브랜드를 보유하면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체 유통망 없이도 Asset-Light 기반의 고마진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양식품의 '불닭'과 KT&G의 '에세'에 주목. 삼양식품, KT&G 업종 Top Picks 유지 (음식료/통신 이다연)

• **6월 바이오시밀러**: 6월 바이오시밀러 처방 전반적으로 양호. Inflectra(셀트리온)는 30%대 M/S 방어, Truxima(셀트리온)도 Trazimera M/S 하락으로 우위 확보. Zymfentra(셀트리온)는 기관·소매 채널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세 지속 (제약/바이오 이지수)

• **HK이노엔 BUY/6.7만원**: 2Q26 매출액 2,668억원, 영업이익 306억원으로 추정. 환급금 회계처리 방식변경 및 당료 코프로모션 종료로 매출 성장 둔화 예상되나, 수액제 성장과 비용 감소로 연간 영업이익은 1,283억원 예상. 27년 1월 미국 품목허가가 예상되며, 유럽 L/O 협상도 순항 중. Peer 멀티플 하향(10배→9배)을 반영해 적정주가 하향 (제약/바이오 이지수)

- **코스메카코리아 BUY/12만원:** 2Q26E 매출액 2,020억원(YoY +25%), 영업이익 280억원(YoY +22%)으로 컨센서스 부합 전망. 1위 고객사가 필사에서 밤 제품으로 전환 성공하며 기여도 최대, 스킨케어 카테고리 주도. 청주 하이드로겔 신규 카테고리도 1Q26부터 매출 발생하며 3Q26E 본격 성장 궤도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씨젠 BUY/4.5만원:** 2Q26E 매출액 1,311억원(YoY +15%), 영업이익 199억원(YoY +5.5배)으로 시장 기대치 소폭 상회 전망. 비호흡기가 678억원(YoY +26%)으로 구조적 성장을 이어가며 외형을 견인. 비호흡기 구조적 성장과 함께 연내 자사주 소각 이슈 맞물려 있으며, 업종내 높은 배당 시가배당률(2026E 4.1%) 또한 매력적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인터로조 Not Rated:** 2Q26E 매출액 326억원(YoY +6.0%), 영업이익 57억원(YoY -0.3%, OPM 17.5%) 전망. 본업 OEM 성장 측은 실리콘하이드로겔. 2026.05월 FDA 허가를 확보하며 글로벌 대형 4사향 납품 계약 타진 중. 신사업은 컬러렌즈 D2C(클라렌 스튜디오)로 D2C 투자를 통해 동사의 성과 입증 시, 리레이팅 기대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